

『안전정책 이슈 포럼』



다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안전충남 2050」

2017. 02. 03 (금)

박 근 오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 ▷ 미래사회는 기후환경의 변화와 사회변화의 정도가 심화될 것
- ▷ 그러나 안전에 대한 근본적 가치와 근거는 변하지 않을 것
- ▷ 미래사회 안전에 대비한 일관된 정책기조의 틀을 마련하고, 소통과 창의성, 분석력, 협업의 방법으로 비전수립을 통해 밝히고자 함
- ▷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미래를 위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충청남도를 위한 제안

기존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

미래 안전 환경변화와 전통적 관리체계의 한계

- ▶ 대규모 자연재난과 각종 인적·사회적 재난의 발생, 경제수준 및 시민의식 향상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
- ▶ 안전관리는 국가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안전망 제공,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시민 네트워크형성 등 지방정부 거버넌스 구축이 강조됨
- ▶ 재난 발생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과 발전 역량에 대한 침해가능성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하도록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재난 발생에 총체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기존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

수요자로서 국민의 요구 변화

- ▶ 사고를 ‘예방 가능한 우연’ 이 아니라 ‘신이 점지한 필연’ 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재난에 대한 숙명적 접근에서 벗어나, 정부의 안전관리정책이 생활의 불안요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회 안전 분야에 대한 대응정책 마련을 요구받음
-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도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도민 생활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음
- ▶ 이를 위해서는 도민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난 발생에 대비한 전방위 지역방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 간의 정책적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공통의 가치지향성 설정이 시급함

새로운 가치의 설정 필요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

- ▷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며, 재난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임
- ▷ 현대사회에서는 예상치 못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식되는 안전권 보장과 안전한 생활환경의 제공이 가장 근본적인 복지라 할 수 있음

새로운 가치의 설정 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주체로서 지방정부 역할 강화

- ▶ 안전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의 부재로 인하여 전체적인 시각에서 도민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어렵고, 단기적·단편적 사업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 자연재난 및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사고 빈발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기인하여 중앙정부의 안전관리 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재난관리의 제1차적 책임자이자 최종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할이 강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과 단체가 안정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행정의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일관된 지향성이 필요함

배경 및 필요성

- 1)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
 - 기후 환경의 변화, 사회환경의 다변화, 과학 기술의 발달
- 2) 기존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
 - 수요자로서 도민의 안전욕구 증대
- 3) 새로운 가치의 설정 필요
 - 안전은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모든 도민, 기관, 단체가 함께 공유하고 추구할
미래의 가치와 목표, 방향을 정함**

비전 수립의 원칙

“도민과 더불어 수립한다”

참여를 넘어 도민이 직접 . . .
소통을 통해 . . .

- † 도민의 욕구를 파악한다
- † 공통의 비전을 형성한다
- † 형성된 비전을 공유한다

비전 수립 체계



비전 수립 체계

비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과 목표, 전략, 과제의 심의 및 확정• 각계 23명• 격월단위 1회, 총 5차에 걸친 위원회 개최
실행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과 목표의 설정 및 전략과 과제의 도출• 비전위원 중 9명• 매주 오전 7시 조찬모임(16회), 워크숍 4회
충남재난안전 연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그룹인터뷰, 현장조사 28회• 실행위원회 안건 준비 및 결과 정리• 목표와 과제 설정을 위한 세미나 2회
안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위원회, 실행위원회, 연구센터 활동 지원• 도민 의견수렴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기회 마련<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운홀미팅 2회, 시·군 공무원 워크숍 2회

도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통해 도민의 안전요구 파악 및 사업 발굴

	현장조사	그룹인터뷰
분 야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재화재, 청소년수련시설, 도서(섬) 및 해저시설, 생활안전, 해양오염, 스쿨존,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어업작업사고 등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농어촌주민, 학부모(초등학생), 시민단체, 노인 등
횟 수	총 15회	총 13회



-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공무원, 전문가, 도민이 합동으로 비전 수립에 대한 목표와 핵심가치 설정 및 공유
 - 시·군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수립중인 안전충남비전 및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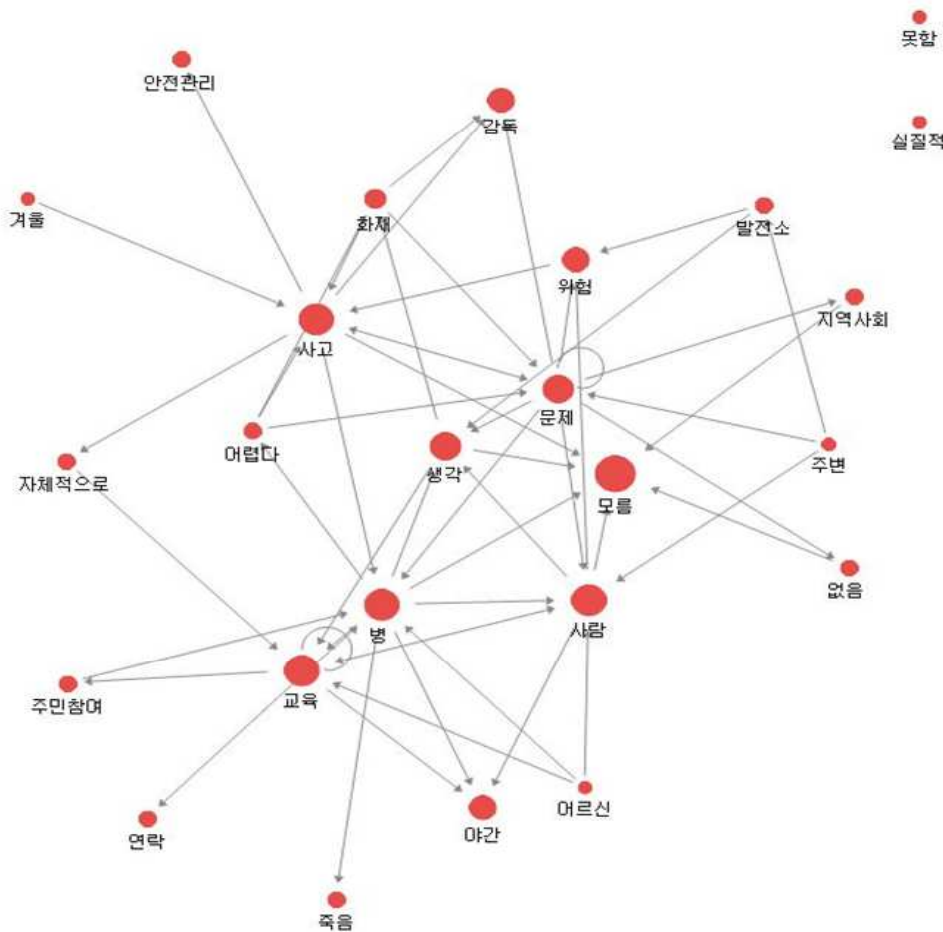
- 타운홀 미팅(2회, 권역별)을 통한 비전의 핵심가치 및 목표와 전략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도민과 내용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전문가 중심의 비전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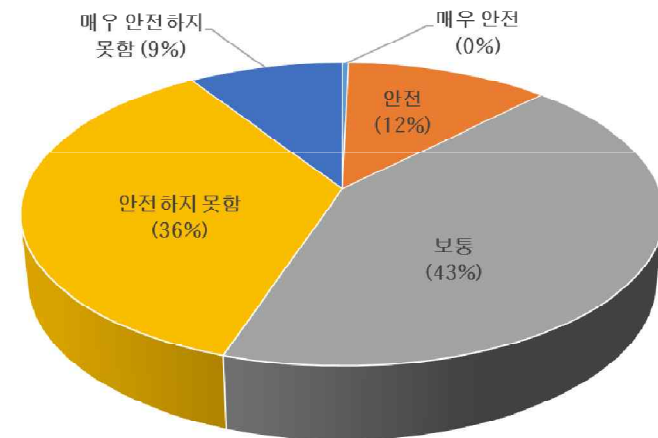
- 학계, 경제계, 연구기관, 중앙정부, 도내 직능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 24인으로 구성된 비전위원회 운영
- 충남 안전비전 수립의 방향 설정 및 안전충남비전에 관한 의견 검토(총 5회 운영)
- 전문가와 공무원, 연구자 등 8인으로 구성된 안전충남비전 실행위원회 운영(조찬회의, 총 16회 운영) 및 워크숍 실시(총 5회 실시)
 - 안전의개념 및 범위, 도민참여 확대방안, 도민 의견수렴 및 조사 방법의 구체화, 비전·목표 및 전략과제 논의 및 구체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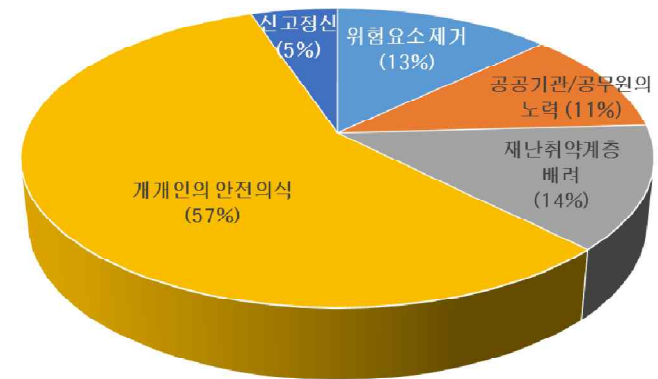
+ 도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



〈일상생활 속 안전성〉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

기후변화 추이 및 전망

- ❁ 최근 70년간 평균기온 및 최고기온 상승한 반면, 최저기온은 감소 추세
- ❁ 폭염일수는 감소하는 반면, 열대야 일수 증가
- ❁ 여름일수가 증가하고, 연강수량도 계속 증가

⇒ 충남의 향후30년간 기온상승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연강수량, 여름일수,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2015)

[최근 70년간 충청남도 기후변화 특징]

구분	1945년	2015년	경향성
평균기온(°C)	11.87	12.09	△0.03(°C/10년)
최고기온(°C)	17.30	17.72	△0.06(°C/10년)
최저기온(°C)	7.53	7.17	▼0.05(°C/10년)
연강수량(mm)	1,124.10	1,574.06	△64.28(mm/10년)
여름일수	108.60	115.96	△1.05(일/10년)
폭염일수	13.67	11.41	▼0.32(일/10년)
열대야일수	4.61	5.09	△0.06(일/10년)

※자료: 충청남도 서해안 기후환경변화연구소, 2015, 「충청남도 기후변화 100년 '과거70년, 앞으로 30년'」.

[미래 30년간 충청남도 기후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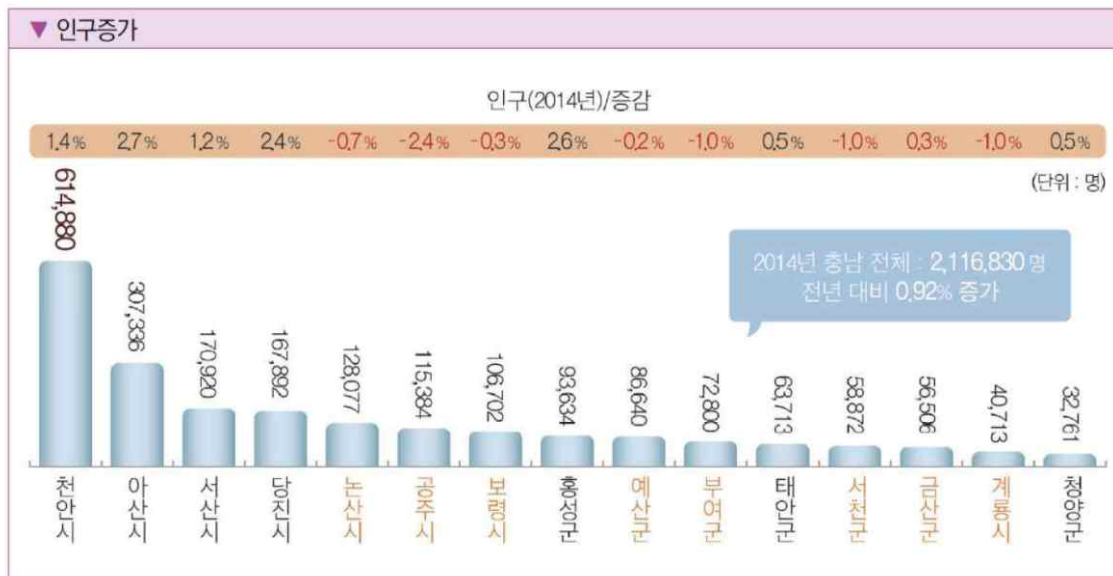
구분	2025년	2035년	2045년	경향성
평균기온(°C)	12.94	13.23	14.84	△0.95(°C/10년)
최고기온(°C)	16.15	16.52	17.15	△0.50(°C/10년)
최저기온(°C)	9.99	10.18	11.08	△0.55(°C/10년)
연강수량(mm)	1,083.98	1,019.35	1,210.00	△63.01(mm/10년)
여름일수	132.29	139.32	139.92	△3.82(일/10년)
폭염일수	11.69	12.02	23.81	△6.06(일/10년)
열대야일수	17.73	20.47	26.49	△4.38(일/10년)

※자료: 충청남도 서해안 기후환경변화연구소, 2015., 「충청남도 기후변화 100년 '과거70년, 앞으로 30년'」.

3. 충남 재난안전 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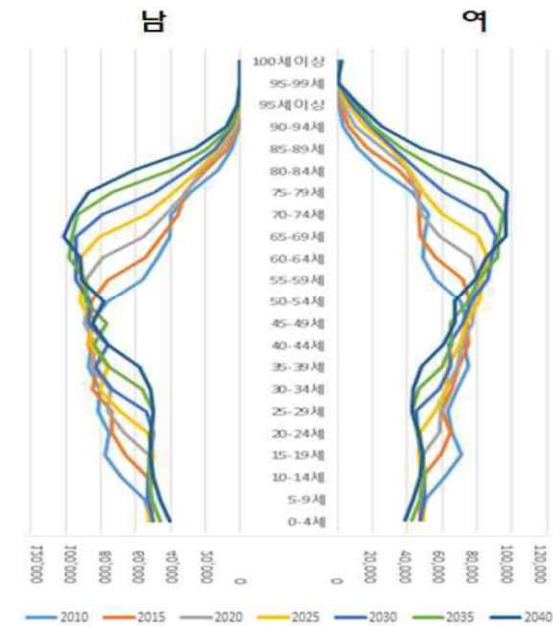
인구 현황 및 전망

- ❁ 2014년 충남 전체의 인구증가율은 전년대비 0.92% 증가
 - 천안/아산/서산/당진/홍성 등 증가, 반면 공주/부여/서천 등 감소
- ❁ 2030년까지 인구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통계청)
- ❁ 저출산 · 고령화는 전국적 현상으로, 2014년 대비 2030년의 고령인구는 2배 증가 예상



※자료: 충청남도, 2015, 「2015충남 사회지표 요약」.

〈충남의 지역별 인구증가율(2014)〉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인구추계교실」.

〈충남 남녀 인구변화 전망〉

재난취약계층 현황 및 특징

- 충남 아동인구는 '09~'14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15년 감소로 돌아섬
⇒ 저출산 영향으로 감소추세 지속 예상
- 14년 충남 노령화지수는 110.2%로 전국(88.7%)보다 높은 수준이며, 고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전망됨
- 최근 5년간 장애인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지체장애인의 비중이 높고 복지시설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외국인 거주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천안/아산에 과반수 이상이 거주

[충남 시군별 고령인구 구급사고의 종류별 비율(%)]



[충남 외국인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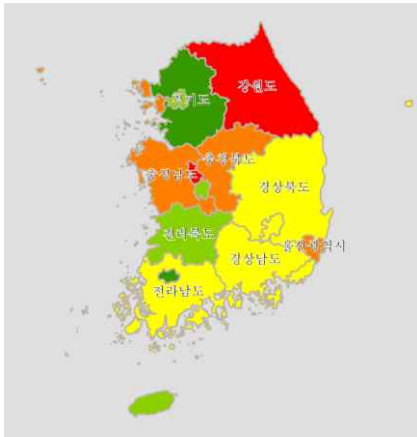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918,917	982,461	932,983	985,923	1,091,531	1,143,087
충남	42,753	48,091	46,141	49,924	54,557	56,583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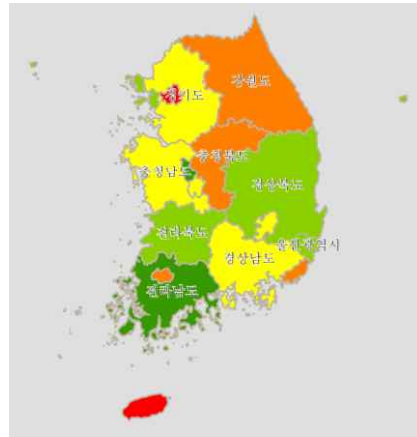
충남 지역안전지수 현황

- ❁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의 지역안전에 대한 책임성 강화 목적으로 매년 지역안전지수 공개
- ❁ 2015년 공개 결과, 충남은 4등급 3개, 3등급 4개로 전반적으로 부진
- ❁ 올해 발표된 지수 공개 결과, 작년에 비해 오히려 하락(안전사고 3등급→4등급)
- ❁ 시·군별로는 전년대비 등급이 상승한 곳은 시 12분야, 군 18개 분야이며, 하락한 곳은 시 13분야, 군 10개 분야임
- ❁ 단순히 비교해보면 비교적 전년도에 비해 지수 등급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나, 지수 자체가 중하위 그룹에 대거 포진되어 있어 전반적인 안전도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다분함
- ❁ 이에 분야별 산출지표(특히 위해지표)를 토대로 정확한 조사 및 원인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적절한 개선 종합대책 수립 및 지속적 관리방안 모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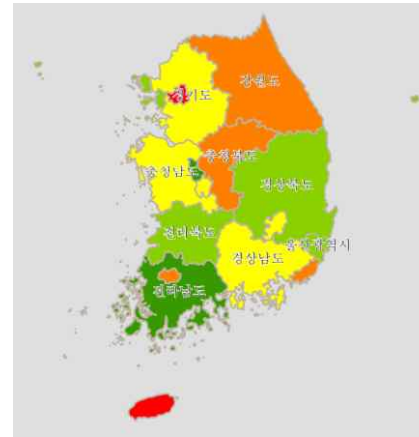
충남 지역안전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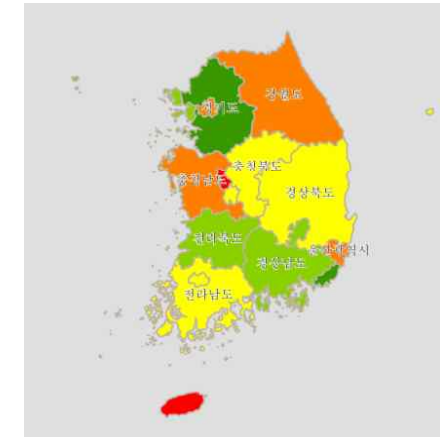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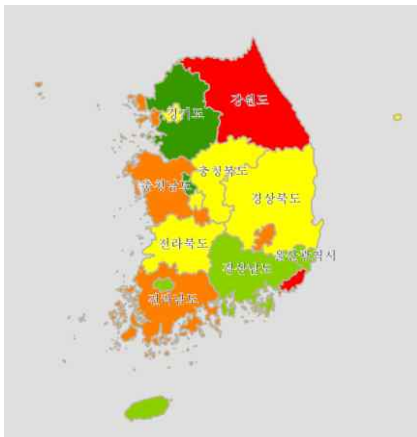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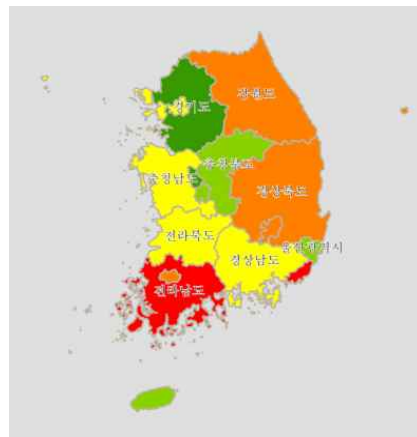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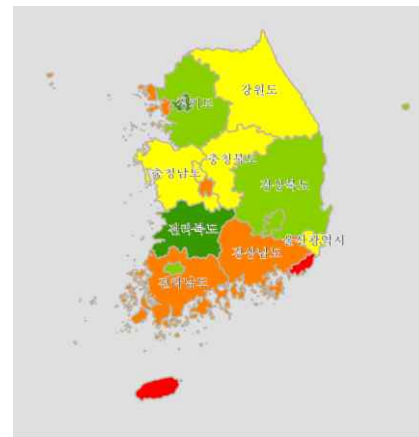
〈안전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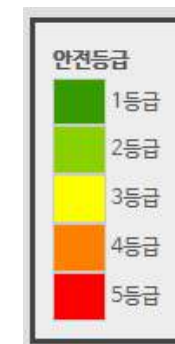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3. 충남 재난안전 여건 분석

+ 충남 안전환경 종합 진단

SWOT 분석 결과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 정부부처·연구기관·교육시설 집중 재난안전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 재난안전 전담부서 및 긴급구조 인력 확충 근거에 기반한 정책수립 의지 및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재난안전 취약성 격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행조직 불명확 주민 안전의식 저조 및 교육기회 부족 재정자립도 취약 및 예산투입 경직성 안전거버넌스 역량 미입증
Opportunity (기회)	SO전략 (공격)	WO전략 (국면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ICT기술력 우위 국가 재난안전 R&D 등 산업수요 증가 재난안전 법제 정비 및 고도화 높아진 자치의식과 지역사회 공동체 관심 증가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한과 책임의 안전자치 구현 안전정보 접근권 및 전달체계 강화 재난안전 DB 수집 및 관리 등 정책기반 강화 재난안전 산업 육성 및 집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형 안전활동 기반 구축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안전서비스 체계 강화 다양한 안전네트워크 활성화 및 기술적용 재난행정지원 시스템 강화
Threat (위협)	ST전략 (다각화)	WT전략 (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 증가 신종재난 및 복합재난 증가 저출산·고령화, 결혼이주 등 재난취약계층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기반의 재난안전 교육 및 매뉴얼 개발 보급 실질적 현장대응 능력 향상 안전취약계층 배려 정책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중심의 안전기반시설 강화 및 안전한 지역만들기 전면적 생활안전문화 운동 충남도정 및 조례의 안전요소 강화 안전골든타임 확보 체계 강화



기본 이념

생명가치 존중

-  생명이란 유기체와 분리되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창발성 속성으로, 생명가치 존중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체가 지닌 생명의 존엄성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적 가치와 비견할 수 없는 고유한 것으로 지켜져야 함
-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를 아끼고 존중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평화로운 삶은 안전할 때 가능하므로 안전의 기본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생명간의 우열을 가르는 사회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함
-  현대 사회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 시대로, 안락한 생활 공간과 협력적 거버넌스도 생명가치에 대한 존중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정 없이 출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질서가 시스템 내에 정착해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순환구조를 가질 수 있으므로 생명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존중해야 함



기본 이념

더불어 함께

-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성에 근거하여 시장, 정부, 시민사회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참여와 타협의 단계를 넘어서 서로의 협력과 의존성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함**
-  **안전은 외부에 의존하여 새롭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에 의해 형성하는 공동체를 통해 안전이 확보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주체적 역량, 협력과 배려의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기본 이념

누리는 안전

-  지금까지 안전은 국가가 베풀어주는 시혜로 여겨져 왔으며, 국민은 ‘돌봄’을 받는 수혜자일 뿐 주체적인 위치로 자리 잡지 못하였으나, 누리는 안전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가 있고, 구성원 모두가 이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함
-  누린다는 것은 마음껏 즐기거나 맛본다는 뜻으로, 시민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안전함을 권리로 인식하여 안전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안전을 의미하며, 안전에서 오는 믿음과 신뢰가 충남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임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비전

행복한 안전 충남!
다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립니다.

목표

높은 의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정착

편안하고
튼튼한
안전생활터
조성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실현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운영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

전략

- 자율형 안전활동 기반 구축
- 전면적 생활안전문화 운동 전개
- 정책과 제도의 안전 요소 강화

- 안전·안심 위협요인 저감
- 구조구급 골든타임 확보
- 재난에 강한 지역 사회 역량 조성




- 안전정보 접근권 확대
- 수요자 중심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자치 구현
- 실질적인 현장 대응 능력 향상
- 행정지원 시스템 강화

- 도민주도형 안전활동 영역 확대
- 다양한 안전 네트워크 구성
- 지역 특성에 기반한 안전거버넌스 운영

5대 목표와 기본방향

[목표 1] 높은 의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정착

-  안전문화란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행동과 생각이 안전한 행동양식
-  위험한 행동과 생각을 하는 이유는 1)몰라서, 2)알아도 사회적 분위기가 어색해서, 3)안전보다 다른 가치가 우선하기 때문에 등
-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중에 대한 교육과 사회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함




전략 1. 자율형 안전활동 기반 구축

전략 2. 전면적 생활안전문화 운동 전개

전략 3. 정책과 제도의 안전요소 강화

5대 목표와 기본방향

[목표 2] 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 조성

-  도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삶의 공간을 생활터로 정의 (삶터, 일터, 배움터, 놀이터)
-  생활공간에서의 안전의 개념은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심도 포함되어 편안하고 든든해야 함
-  편안하고 든든함은 이웃, 지역사회, 정부 등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노력 필요




전략 1. 안전 · 안심 위협요인 저감

전략 2. 구조구급 골든타임 확보

전략 3.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5대 목표와 기본방향

[목표 3]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실현

-  안전복지는 국민으로써 누려야 할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함을 의미
-  생활양식과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욕구 수준도 다양하며 큰 폭으로 변화함
-  도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넓은 의미의 안전복지이며, 좁게는 최소한의 안전수준에서 한사람의 도민이라도 소외됨이 없어야 함




전략 1.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

전략 2. 수요자 중심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

전략 3.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5대 목표와 기본방향

[목표 4]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운영

-  안전시스템은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 사회체제
 - 도(道)의 안전관리체계, 안전 및 재난요소를 관리하는 모든 관리주체의 대응능력, 주민의 안전의식과 대응태세 등
-  안전시스템은 주민의 절대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적응성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함
-  분산과 통합, 각 주체의 책임성 강화에 의하여 가능함




전략 1.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자치 구현

전략 2. 실질적인 현장대응능력 향상

전략 3. 행정지원 시스템의 강화

5대 목표와 기본방향

[목표 5]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

-  이해가 상충되는 안전문제의 해결은 정부, 시장, 시민단체의 참여와 협력에 의해 가능함
-  이를 위해서는 참여주체의 주체적 역량을 키우고, 토론과 합의를 추구하는 문화적 성숙을 필요로 함
-  주체적 역량과 문화적 성숙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지원이 필요

전략 1. 시민주도형 안전활동 영역 확대

전략 2. 다양한 안전 네트워크 구성

전략 3. 지역특성에 기반한 안전거버넌스 운영

목 표

전 략

추진 과제

높은 의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정착

자율형 안전 활동 기반 구축

전면적 생활안전문화운동 전개

정책과 제도의 안전요소 강화

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 조성

안전 · 안심 위협요인 저감

구조구급 골든타임 확보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안전정보 접근권 확대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실현

수요자 중심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자치 구현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운영

실질적인 현장 대응능력 향상

행정지원 시스템 강화

도민주도형 안전활동 영역 확대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안전 네트워크 구성

지역특성에 기반한 안전거버넌스 운영

안전불감증 극복을 위한 자발적 도민운동 전개

자율형 도민 안전모임 활성화

리더 안전역량 강화

다양한 테마의 생활 운동 실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다각화

안전등급제 도입

안전문화 인센티브 제도 도입

안전요소 강화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

기반시설 안전성 확보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생활환경 규제 강화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응급의료 대응 체계 강화

골든타임 저해 요인 제거

재난정보 통합관리 체계 구축

Lifeline 긴급복구체계 구축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 대응력 강화

피해지원 확대 및 조기 회복방안 강구

안전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참여형 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도민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한 안전정보 매체 개발

적극적 안전복지 지원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전략 수립

위험요소 관리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통한 안전 취약계층 보호

지역복지시스템과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연계한 통합 사회안전망 마련

자치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안전자치를 위한 수평적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충남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재난안전 교육훈련 체계 강화

재난안전 관련계획 및 매뉴얼의 집행력 강화

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재난안전포털 구축

재난안전 예산 관리체계 구축

스스로 자신을 지켜내는 안전시민 육성

서로 돕고 배려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안전거버넌스를 위한 다양한 주민조직의 재구조화

안전거버넌스 생태계로서의 플랫폼 조성 및 활성화

자율형 주민안전교육 네트워크 강화

안전거버넌스의 자율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공동체 유형별 맞춤형 안전거버넌스 모형의 개발 및 보급

안전거버넌스 가동을 위한 재난안전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 ✚ **충남의 재난안전 정책의 미래상 구현을 위한 실천**
- ✚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충남의 정책적 방향 모색(분야별)**
- ✚ **지역안전지수 개선과 충남의 안전 환경 향상과의 연계**
- ✚ **도 · 농 혼합형 지역 특성에 따른 방재전략 모색**

Thank You!